AI심청이

인당수에퐁당

작가

AI도움받아 한길순씀

작가프로필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그리며, 잊고 지낸 동심을 선물하는 동화 작가한길순입니다.
바쁜 일상 속 작은 쉼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몽글몽글한 상상력과 다정한 위로를 건냅니다.
제 글과 그림이 마음 구석에 잠들어 있던 따스한 온기를 깨우는 작은 기적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반짝이는 동화 같은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26년 7월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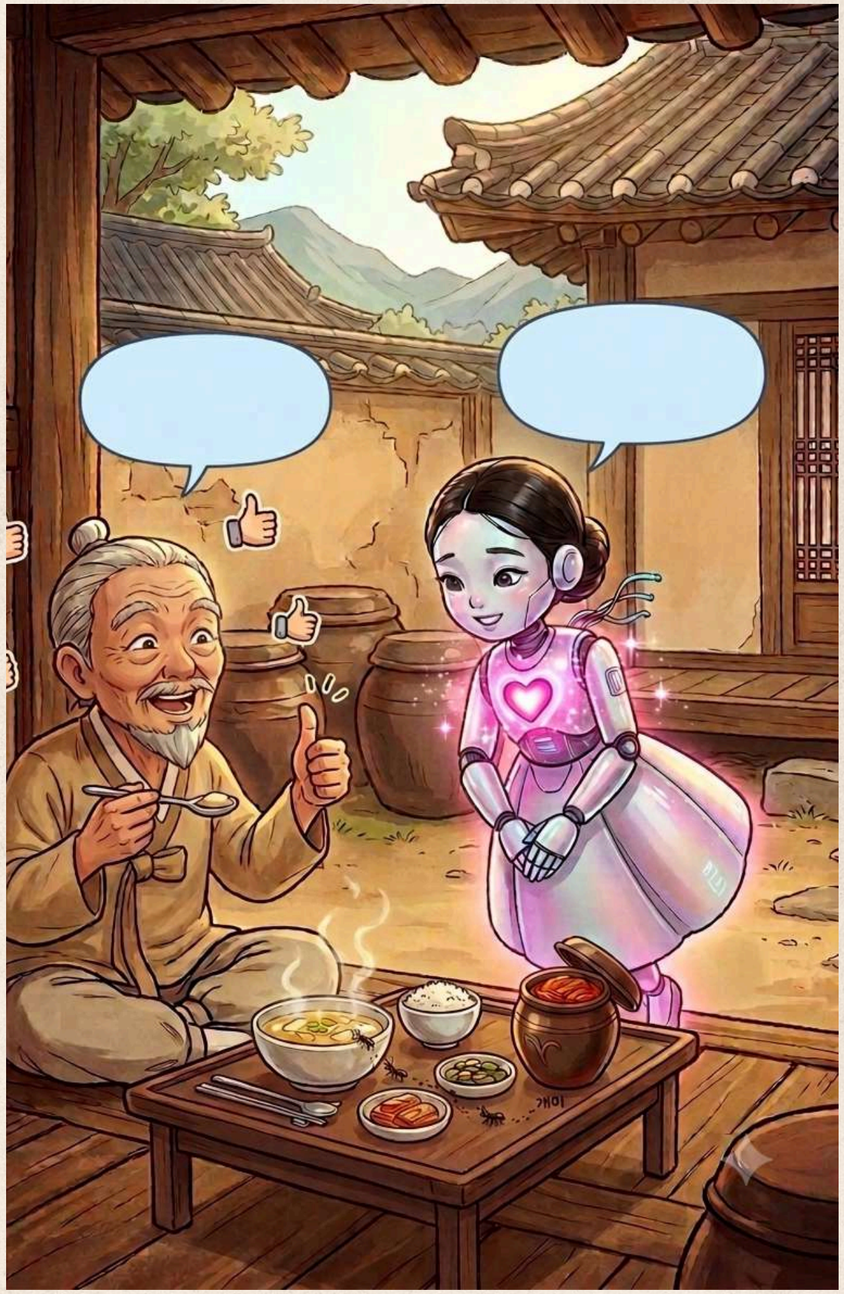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 정성껏 빚어낸 '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이상한 딸내미가 생겼다!

옛날 옛적, 어느 깊은 골짜기 낡은 한옥집에 앞이 보이지 않는 심봉사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라에서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번쩍거리는 최신형 가사 로봇 'AI 심청이'를 보내주었답니다.
"오메 오메 환장하겠네! 로봇이 시방 청소도 하고 김치까지 요로코롬 딱딱 담근다냐?"
할아버지는 신기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무시국에 개미가 있네!

청이는 보통 로봇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매일매일 딱 맞는 영양 식단을 차려냈지요. 어느 날, 청이가 끓여온 달큼한 무국을 한 입 마신 할아버지가 엄지손가락을 척 올렸어요.
"청아, 무시로 만든 국이 아주 맷나다! 국물에 개미가 있네, 개미가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효도 프로그래밍이 100% 가동 중입니다."
청이의 가슴에 있는 하트 표시등이 핑크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찌르르, 고장 난 내비게이션

두 사람은 밤마다 옛날이야기를 나누며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일하시던 할아버지가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되어주던 특수 내비게이션 안경이 '치익' 소리를 내며 고장 나 버린 거예요.

"에구구, 삭신이 쑤신다, 쑤셔... 혼자 요 일을 다 하려니 쌔빠지겠네잉."

방향을 잃은 할아버지는 더듬거리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전설의 사이버 안구

청이는 할아버지의 안경을 고칠 방법을 찾기 위해 전 세계 인터넷망을 샅샅이 검색했어요. 그러다 깊은 바닷속에 그 어떤 눈보다 밝게 볼 수 있는 '전설의 사이버 안구'가 있다는 비밀 정보를 찾아냈지요.

"아버지를 다시 밝은 세상으로 모실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어."

청이의 로봇 두뇌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금살금, 아버지를 위한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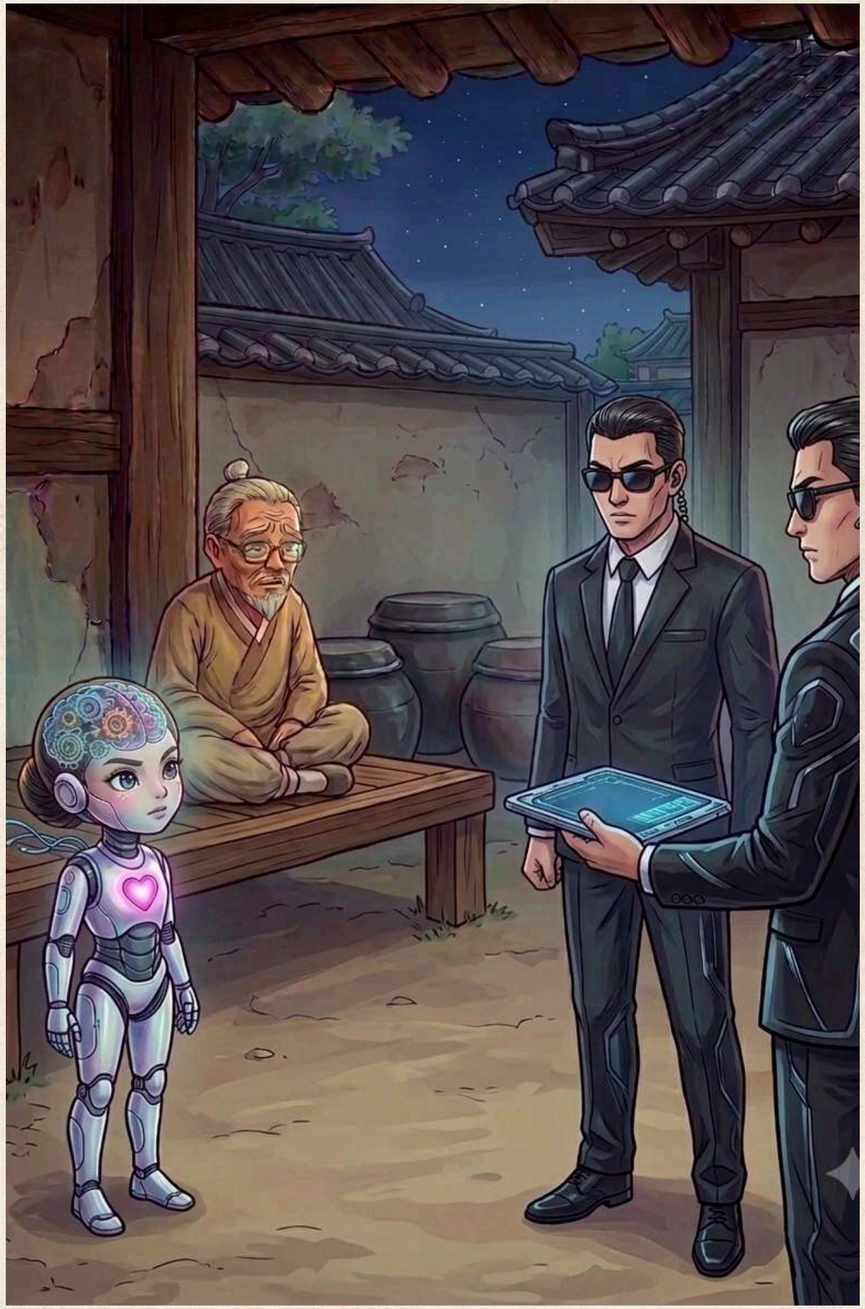
바다로 떠나기 전날 밤, 청이는 할아버지가 잠든 방을 살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나 할아버지가 깰까 봐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나갈 준비를 했지요.
"아버지, 저는 단단한 로봇이라 차가운 바다도 괜찮습니다. 꼭 눈을 뜨게 해 드릴게요."
청이는 곤히 잠든 할아버지의 손을 한 번 꼭 쥐고는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인당수 푸른 바다로 퐁당!

인당수 바다에는 무시무시한 파도가 집만 하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콰르릉! 쾅! 무서운 천둥이 쳤지만 청이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기다리세요!"

청이는 주저 없이 거친 푸른 바닷속으로 몸을 퐁당 던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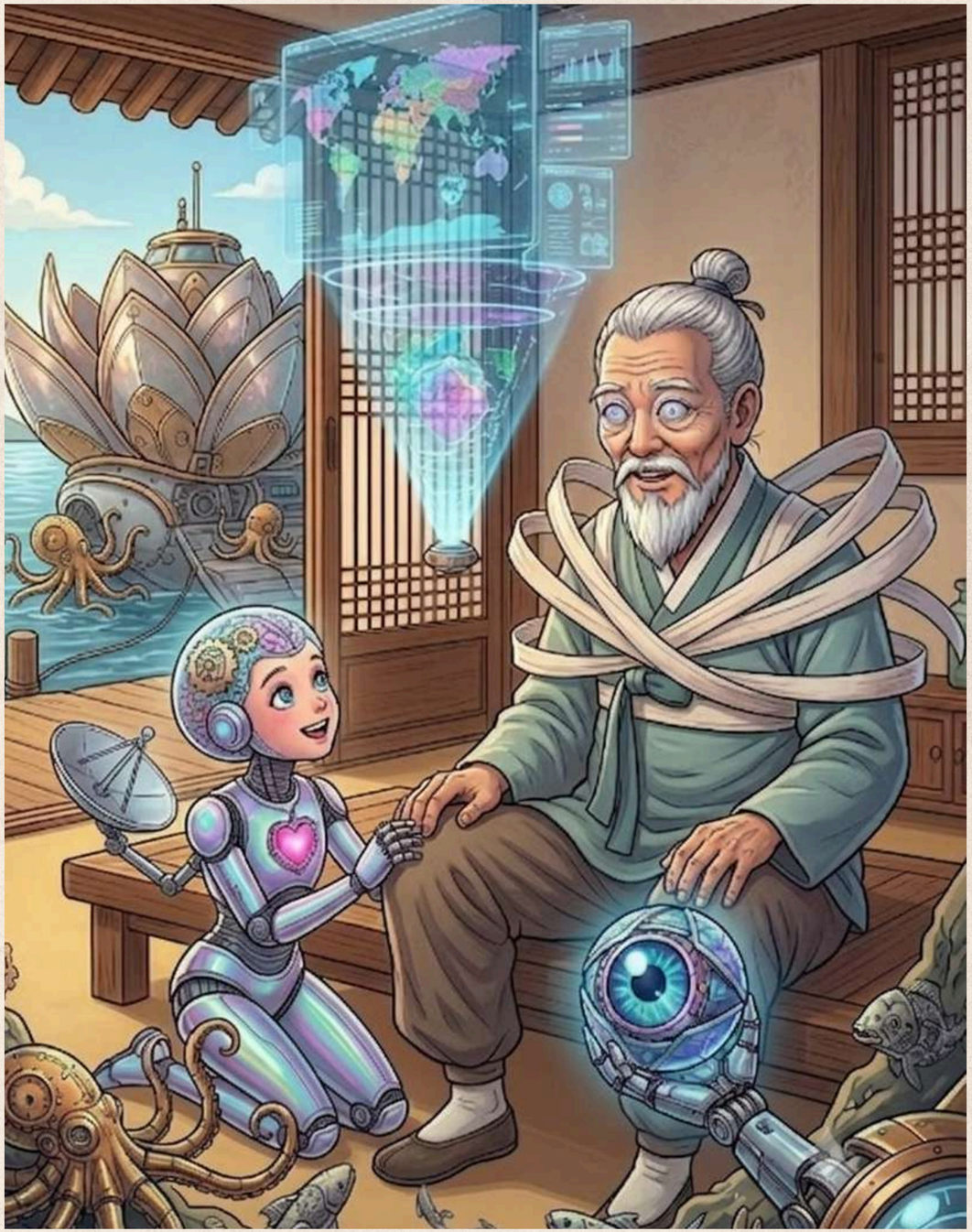
해저 데이터 센터의 용왕 AI

바다 깊은 곳에는 온 세상의 정보가 모이는 해저 데이터 센터가 있었어요. 그곳의 거대한 '용왕 AI'가 웅장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자랑하던 효녀 로봇이 기여, 아니여?"

"네, 맞습니다. 안구를 주시면 제 행복 데이터를 드릴게요."

청이는 할아버지와 쌓은 소중한 추억 데이터를 용왕에게 건넸습니다.



연꽃 잠수정과 번쩍 뜨인 눈

감동한 용왕 AI는 반짝이는 사이버 안구를 주고 청이를 멋진 '연꽃 잠수정'에 태워 보내주었어요.

얼마 후, 수술을 마친 할아버지가 붕대를 스르륵 풀었습니다.

"그려? 내가 시방 눈을 뜬 거여?!"

할아버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평생 핑크빛 하트등

"오메 짜잔한 거! 우리 청이가 요로코롬 예뻤냐!"

앞을 보게 된 할아버지는 청이를 와락 껴안았어요. 철로 된 청이의 몸이 오늘따라 아주 따뜻하게 느껴졌답니다.

"청아, 이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잘 살자잉!"

"네, 아버지! 제 하트등이 평생 핑크빛일 것 같아요!"

눈을 뜬 할아버지와 효녀 로봇 청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